

## “아직 마스크 벗기는” 상당수 착용... 일부 혼선도

### 실내 마스크 해제 첫날 표정

“여전한 코로나 확산 불안·걱정”  
등곳길·교실서 착용한 채 대화  
지하철·택시 승차 못해 곤욕도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다.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소식에 흥분해 하면서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오랜 습관이 된 탓인지 마스크를 쉽사리 벗지 않는 모양새다. 대중교통과 병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는 방침에 혼란스러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8시께 광주 서구의 서석중 학생들이 반 배정을 위해 교문을 들어섰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거나 손목에 끼운 채로 교실로 향했다.

3학년이 되는 김보민 군은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가면 마스크를 쓰는 게 버릇이 됐다. 코로나도 똑같은 유행인 시기인 것이라 마스크를 벗기가 조심스럽다. 당분간은 쓰고 다닐 예정이다”고 말했다.

2학년이 되는 김태환 군은 “자율화 소식을 듣고 마스크를 챙겨갈지 말지 고민했는데 부모님이 혹시 모르니 가져가라고 당부했다. 학교에 와보니 친구들 대부분이 쓰고 있길래 가방에서 바로 마스크를 꺼내서 착용했다”며 “벗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익숙해서 그런지 쓴다고 해서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교실에 들어가서도 친구들과 마스크를 쓴 채로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방학동안 잘 지냈느냐 안부를 나누면서도 코 밑으로 내려간 마스크를 다시 올리며 대화를 나누곤 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들도 일부 있었지만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둔 채로 다니는 모습이다.

마스크를 벗고있던 김예송 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렸을 때 흥분하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벗은 채로 다니고 있지

만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가방에 넣어뒀다”고 말했다.

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 않은 대중교통수단과 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광주 동구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북구 오지동 주민 선복순(83)씨는 “뉴스에서 실내·외 마스크가 다 해제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마스크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며 “막상 와보니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더라. 며느리가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가버려서 병원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난처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주변에 마스크를 살 곳도 마땅히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며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니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대중교통·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게 할 거면 규제 자체를 나중에 풀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지하철과 버스·택시 등을 이용하려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저지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학동중심사입구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던 한정민(70)씨는 “지인들과 만나 지하철로 이동하려고 하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입장이 안된다고 했다. 식당이랑 영화관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왜 지하철에서는 착용해야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심 약속을 위해 급히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던 오정숙(65)씨도 마스크로 곤욕을 치렀다. 오씨는 택시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불렀지만, 막상 마스크를 가져오지 않아 도착한 택시에 탑승할 수 없었다.

오씨는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탓에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는지 몰라 챙겨오지 못했다. 오래간만에 맞이한 휴무날에 ‘노 마스크’로 외출했다가 괜스레 봉변만 당했다”고 머쓱해했다. ▶ 관련기사 13면

김혜인·정성현 기자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환한 표정으로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김양배 기자

## 본보 ‘지역신문 우선지원대상사’ 18년 연속 선정

### 광주·전남·전북서 유일 호남 대표 정론지 입증

전남일보가 18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됐다. 이는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지역 최초로 전남일보가 지역 대표 정론지임을 입증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30일 전남일보를 비롯한 전국 30개 지역일간지와 45개 주간지를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우선지원 대상사로 선정해 발표했다.

지원 대상사는 지난해와 변화가 있는데 일간지는 지난해 23개 사에서 7개 사가 늘어난 반면, 주간지는 지난해 53개 사에서 8개 사가 줄었다.

지발위는 1년 이상 정상 발행, 경영 건

전성, 제작·취재, 판매·광고 윤리 자율강령 준수, 광고비중 50% 이하, 편집자율권 보장, 소유지분 분산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하고 있다.

전남일보는 지난해 5·18 42주년 기획 특집으로 ‘기록을 넘어 시대를 넘어’를 집중보도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창작 당시 사례 및 반향 △5·18을 다룬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대학신문 등을 통해 5·18 편향과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록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여순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 심층보도를 통해 여수·순천 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을 조명하고 진상규명 및 보상 등 명예회복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다.

여기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신안군 유치’를 위해 신안을 집중 조명하

는 기획을 쓰기도 했다. 신안 갯벌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지역민들의 열망을 보도한 결과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가 신안에 들어서는 데 일조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연중 캠페인 ‘지방소멸 극복하자’를 진행했으며 ‘충장로의 보물 동구의 명인명장을 찾아서’도 꾸준히 연재해 지역 상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박성원 전남일보 편집국장은 “18년 연속이라는 대기록을 세워 큰 기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도 같이 느낀다”면서 “올해도 임직원들과 힘을 합쳐 지역맞춤형 콘텐츠 확대, 전남일보만의 독창성 확립,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으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언론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 단 하나의 진짜

# 밸런스 라인

엑스페론